

‘몸짓의 감동’ 국경이 없다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춤- 아시아, 세계를 품다’ 22~23일 씨어터 연바람...독일·싱가포르 등 참여



이탈리아 비토 알파리노 무용단.



일본 요코 코이케 댄스 시어터.



싱가포르 오디세이 댄스 시어터.

아무런 대사 없이 몸짓만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용은 흔히 감상하기 어려운 장르로 꼽힌다. 하지만 애써 스토리를 찾는 대신, 무대 위 무용수의 몸짓에 그냥 몰입하다 보면 사람 몸이 주는, 가장 원초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음악과 조명 등이 어우러지면 감동은 배가된다. 지역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해외 무용수들의 춤사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오는 22~23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 씨

어터 연바람에서 열리는 ‘춤-아시아, 세계를 품다’는 독일과 이탈리아 등 해외 무용수들이 함께 공연하는 행사다.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이 올해 지역 특화문화거점 지원 사업으로 진행중인 ‘동구아트로드 페스티벌’ 마지막 프로그램 랩이다. 23일(오후 7시30분) 열리는 ‘춤, 세계를 품다’에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이탈리아 무용수가 출연한다.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예술감독 임지형, 조연대 교수)이 ‘삶이 흔들림조

차 춤이다’를 주제로 작품을 선보이고, 일본의 요코 코이케 댄스 시어터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싱가포르 오디세이 댄스 시어터는 싱가포르 동전의 팔면체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 ‘여덟가지 요소’를 공연한다. 현대 무용가 바나훈,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아론 사미르&비토 알파리노 무용단은 장소와 사랑에 대한 탐구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22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춤, 아시아를 품다’는 아시아 각국의 전통무용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다. 한국춤으로 태평무(정소영), 한량무(이호준·박용우), 손북춤(정주영), 진도 북춤(문한술)과 강강수월래를 만날 수 있으며 방글라데시(미타), 인도(프라틱 샤 사르마), 베트남(김승희 등), 러시아 무용(미타) 등을 만날 수 있다. 19일 오전 10시에는 조선대 무용과에서 싱가포르, 독일, 이탈리아 무용단 초청 워크숍도 열린다. 문의 062-230-74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산행’

남도 산하에 켜켜이 쌓인 연륜

문두봉 미수전...22일까지 DS갤러리

‘연륜이 깊어지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눈을 뜨다.’ 한국화가이자 서예가인 강은 문두봉 선생이 오는 22일까지 DS갤러리에서 미수(米壽)전을 연다. 문 선생은 꽃과 나무, 강과 산 등 서정 깊은 남도의 산하에 연륜의 미를 더해 화폭에 옮긴 작품과 서예 작품들을 선보인다. ‘다도해’ ‘미항사 도술암’ ‘여수 금오도’ ‘천관산’ 등 작품에서는 붓을 들기전 문 선생의 깊은 성찰이 느껴진다. 세월이 더해지면서 부끄러운듯 고개를

숙인 묵련과 국화에는 작가 스스로의 겸손이 담겼다.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는 “인생과 예술은 시간적으로 견주어 말하지만 강은 화백의 경우 예술과 인생은 동행하는 듯하다”고 평했다. 30여년 전 서예를 시작한 문 선생은 국전 입선을 포함해 각종 미술대전에서 입선했으며, 이후 설봉 지용현 선생과 송산 박문수 선생에게 사사받으며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문의 062-233-391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담양 생오지 마을, 문학 향연

생오지문예창작촌 내일 문학제

깊어가는 가을 담양의 한 오지 마을에서 은은한 문학의 향연이 펼쳐진다. 오는 18일 생오지문예창작촌(대표 문순태)에서 ‘문학의 숲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생오지문학제가 열린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는 이번 문학제는 시와 수필, 소설이 노래와 그림과 만나 이색적인 ‘화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문학아 놀자’라는 컨셉에 맞춰 참가자들이 문학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초점을 뒀다. 우선선 시인의 여는 시 낭송을 시작으로, 김혜영 시인이 펴사리 토지문학상 수상작 ‘실종’을 낭송한다. 이어 김창승 수필가가 무등사랑 수상작 ‘광주로 가는 길’을, 정숙인, 허승자, 이춘숙, 김현정, 박하정 씨가 소설 ‘타오르는 강’(문순태 작)의 일부분을 읽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부에서는 노래와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앞마당에서 펼쳐진다. 윤상규 씨가 색소폰 연주로 ‘비나리’ ‘가을 사랑’을 들려주고 김정희 씨가 기타로 ‘슬픈 눈물과 작은 로망스’를 연주한다. 가요와 댄스 공연도 이어진다. 박말임 씨가 ‘내사랑 내결’을, 김광열 씨가 ‘동숙의 노래’를 열창한다. 이루다, 이어진 씨로 결성된 ‘이시스터즈’는 댄스 ‘노노노’를 선보이고 소설가 은미희, 장마리 씨는 조명순 씨 외 15명과 함께 ‘달달라’를 춘다. 문예창작촌 마당에서는 야외 사회학과 서각으로 꾸민 문학, 시비를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생오지문예창작촌은 문예창작대학(2년 과정), 문학전문지 발간, 생오지문화학교, 문학세미나와 심포지엄, 신인발굴사업 등 다양한 문예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문의. 061-381-2405

별에 취할까

17~18일 대인시장 ‘별장’...‘애틀 문화거리’·‘다다 아트페어’



대인예술시장 ‘별장프로젝트팀’은 17~18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대인예술시장에서 예술아시아장 ‘별장’을 개최한다. 상인, 작가, 시민들로 구성된 130여팀의 셀러들이 1개월 동안 제작한 수작업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공연도 풍성하다. 곳곳 마루의 길놀이부터 시작으로 화가 박문종의 ‘경작도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다.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과 바둑 프로젝트도 공연한다. 또 시장에 입주한 13팀의 메이커스들은 6곳의 창작 공간을 개방하고 전시 및 판매,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별장에서는 ‘2014 문화의 달’과 연계한 ‘아시아 문화거리’와 ‘다다 아트페어’ 등 특별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대인예술시장 내 특별 거리에서 열리는 ‘아시아 문화거리’는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중국, 일본 등 동남아 지역 다문화 가정과 유학생 15팀이 참여, 전통 먹거리와 공예품을 판매한다. 대인예술시장 창작스튜디오 다다가 진행하는 ‘다다 아트페어’는 17일 오후 5시 오픈식을 시작으로 3일 동안 대인 수산시장 주차빌딩 내 4, 5층에서 열린다. 대인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41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회화, 조각, 사진, 도예 등 약 1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또 ‘예술가 일병구하기’(18일 오후 2시)를 주제로 토크쇼도 열린다. 문의 062-233-1420. /김경민기자 kki@

음악에 취할까

광주실버연예예술협회, 19일 무등산 음악회

‘음악이 흐르는 가을 무등산’ 광주실버연예예술협회(찾아가는 광주실버예술단)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무등산 윤림제 야외무대에서 ‘설레임이 있는 무등산 가을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국립공립 무등산과 광주의 문화예술을 결합, 무등산을 소재로 하는 대중음악을 표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은 광주실버합창단과 오케스트라악단의 무등산의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음악 연주, 색소폰·트럼펫·아코디언 등 연주자의 솔로 무대, 관객과 함께 부르는 포크송·트로트·민요, 관객과 함께하는 웃음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꾸며진다. 민요가수 오목대, 진달래, 포크 가수 이용호, 트로트 가수 배소연, 코미디언 김진용씨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특히 리틀씨어 황민우 군과 협회가 개최한 ‘2014 제2회 G-POP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대중음악 꿈나무 윤민서 양이 출연한다. 광주실버예술단은 55세 이상부터 85세 사이의 예술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광주의 대중예술을 알리기 위해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을 돌면서 공연을 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2013년 생오지문학제에서 참가자들이 난타 공연을 하고 있다.

통나무가구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가구빌딩

홍스제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직수입 최저가 판매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